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

정선영 · 박현숙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Predictors of the Low Level Gambling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Jung, Sun Young ·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so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low level gambling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89 students in 4 universities. Data were obtained from these participants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dministered between August 19 and September 13, 2013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s. **Resul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low level gambling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were self-control, family strengths, social motives, amusement motives, number of gambling peers, onset of gambling, irrational gambling beliefs, gambling experience of father, mother and peers, and risk taking. These perso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explained 65.5% of the variance in low level gambling behavior. **Conclusi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or university students to decrease gambling behavior, intervention programs that manage gambling experience of family and peers should be developed with an emphasis on decreasing irrational gambling beliefs, social motives, amusement motives, and risk taking behavior and increasing self-control and family strengths.

Key Words: Gambling, Behavior, University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도박산업이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인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Lee, 2010), 그에 따른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Molde, Pallesen, Bartone, Hystad,

& Johnsen, 2009). 도박문제란 도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피해나 폐해를 의미한다(Kim, Kwon, Kim, & Lee, 2011).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도박행동은 도박자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재정적, 직업적, 대인 관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동료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Molde et al., 2009). 따라서 도박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의 경우 청소년기에 비해 도박행동 수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Kwon & Kim, 2011) 보다

주요어: 도박, 행동,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eo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50-4392, E-mail: parkhs@cu.ac.kr

- 본 연구는 201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3.

투고일 2013년 10월 11일 / 수정일 2013년 12월 4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도박행동을 하는 대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박행동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Kwon & Kim, 2011). 미국의 경우 대학생의 87%가 도박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Barnes, Welte, Hoffman, & Tidwell, 2010), 국내의 경우도 사행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이 14.5%로 나타났다(Lee, 2010). 또한 사교성 도박자의 경우 90% 이상이 10~20대에 도박을 하기 시작하나(Lee, 2003)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도박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접근 빈도가 높다. 특히 대학생은 성인기로 이행되면서 도박의 종류 중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행성 도박에 합법적인 접근이 가능하여(Goudriaan, Slutske, Krull, & Sher, 2009) 보다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한 결과로 대학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일반인의 2배 가까운 11.0%이며, 대부분의 도박의 종류에서 대학생의 참여율이 일반인의 참여율보다 더 높다는 점(Kwon & Kim, 2011)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도박행동 연구들은 주로 심각한 도박문제 및 병적 도박을 감별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도박행동의 실재를 살펴보면, 도박행동이 저수준에 머무는 집단은 전체 성인인구의 90% 전후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Kim et al., 2011),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는 대학생 역시 저수준 도박행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욱 높다(Kwon & Kim, 2011).

저수준 도박행동은 ‘도박 0수준’과 ‘도박 1수준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11). ‘도박 0수준’은 도박에 경험이 없거나 무관심하고, 타의에 의한 경험이 있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도박의 정도를 의미하며, ‘도박 1수준’은 재미나 사교 목적으로 도박을 하고, 시간과 금액 조절이 가능하여 일상생활과 역할기능에 지장이 없고,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도박의 정도를 의미한다(Ferris & Wynne, 2001). 이러한 저수준 도박행동은 개인의 조절 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에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도박과 도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통제력 손실이 심화되는 문제도박의 개념을 포괄하는 고수준 도박행동(Ferris & Wynne, 2001) 측정도구로 접근할 때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바닥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통계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im et al., 2011).

중독예방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을 보면,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중독문제에 전혀 관여되지 않은 정상집단이나 중독문제가 진전되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장애집단에 비해, 중독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저위험 집단에 대한 개입이 비용효과 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Nation et al.,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도박행동 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박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두어야 한다. 도박의 경우 어느 한 개인이 도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다원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 Kim, 2009). 먼저 도박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의 경우 신경생물학적 요인, 왜곡된 사고를 포함한 인지요인, 개인 동기요인, 성격요인, 정서요인으로 나누어지나 그 중 신경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영향이 크므로 이를 제외한 인지요인, 동기요인, 성격요인, 정서요인 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 Kim, 2009).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요인 중 인지요인으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Jung, 2011; Lee, 2003; Park & Jung, 2011)과 자기통제(Jung, 2011; Kim, 2006; Park & Jung, 2011), 동기요인으로는 도박동기(Lee, 2003), 성격요인으로는 위험감수성향(Jung, 2011; Lee, 2003) 등이 도박행동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Griffiths, Wardle, Orford, Sproston, & Erens, 2009; Hyun & Kim, 2009; Lee & Kim, 2009), 도박을 처음으로 접한 연령(Griffiths et al., 2009) 및 학년(Goudriaan et al., 2009)이 대학생의 도박행동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요인은 선행연구(Jung, 2011; Kim, 2009; Lee, 2003; Park & Jung, 2011)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의 도박 관련 요인 중 가족 요인으로 갈등적 가족환경(Kim, 2009), 도박가족력(Griffiths et al., 2009; Kim, 2009; Park & Jung, 2011), 가족관계 만족도(Kim, 2009), 부모감독(Park & Jung, 2011) 등이 있고, 이들 변인의 속성인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을 함께 다룬 가족건강성(Kim, 2012) 등이 대학생 도박에 유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도박행동은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 이혼 유무, 부모의 도박행동 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행동 경험 여부 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ark & Jung, 2011). 마지막으

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 관련 요인 중 지역사회 요인으로 친구의 도박행동 경험 유무(Kwon & Kim, 2011; Park & Jung, 2011), 도박경험이 있는 친구 수(Goudriaan et al., 2009; Lee, 2010; Park & Jung, 2011), 도박행동의 접근성(Jung, 2011) 등이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예측하는 개인 요인으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 동기, 위험감수성향 및 자기통제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성적, 종교, 용돈, 위험행동 경험 여부, 최초의 도박행동 경험시기 등을 살펴보고,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건강성과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 이혼 유무, 부모의 도박행동 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행동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하며,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친구의 도박행동 경험 유무, 도박경험이 있는 친구 수, 도박행동의 접근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도박행동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2개 광역도시와 2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생이며, 대상자 표집은 전공과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

생회관, 도서관 등과 같은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요인 24개일 때 적절한 피험자 수는 347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400명을 최종 목표 인원으로 하였다. 대상자 400명을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89명(97.3%)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에 앞서 대학생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대학생 3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 응답 용이성은 양호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학용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였다.

3. 연구도구

1) 개인 변인

(1) 비합리적 도박신념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Lee (2003)가 개발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Kwon, Kim과 Choi (2006)가 수정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yun & Kim, 2009; Jung, 2011)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개 하부요인, 즉 자신의 도박능력과 도박판에서의 승리를 실제 가능한 것보다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도박 과정과 결과를 잘못 추론하는 ‘과신적, 비논리적 추론’과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고, 운보다 전략과 기술의 작용을 과대평가하는 ‘기술 과대평가적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2003).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 등 (200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다.

(2) 도박동기

도박동기는 Lee (2003)가 개발한 도박동기 척도 4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도박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 계기를 측정하는 것으로(Lee, 2003),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5개 하부요인, 즉 가벼운 수준의 도박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대인관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사교동기, 가벼운 즐거움과 생활의 활력을 얻고 기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박을 즐기는 유희동기, 도박활동을 통해 스틸과 통제감을 누리하고자 하는 흥분동기,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등의 부적 정서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박을 선택하는 회피동기, 도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잃어버린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회복하거나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금전동기로 구성되어 있다(Lee, 2003).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도박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0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은 Lee (2003)가 개발한 위험감수성향 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거나 접근하려는 일반적인 의지와 동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Lee, 2003),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대학생 연구(Jung, 2011)에서 사용된 바 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0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4)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Gottfredson과 Hirschi (1990)가 개발한 자기통제척도를 Nam과 Ok (2001)이 수정 보완한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인지나 정서 및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Nam & Ok, 2001),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대학생 연구(Jung, 2011)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개의 하부요인, 즉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장기통제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단기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5) 일반적 특성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개인 변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성적, 종교, 용돈, 최초의 도박행동 경험시기 등을 파악하였다.

2) 가족 변인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Eo와 Yoo (1995)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 2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건강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4개의 하부요인, 즉 가족원 간의 몰입인 유대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가치관인 가치체계 공유, 가족의 적응력인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Eo & Yoo, 1995; Kim, 2012).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일반적 특성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가족 변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 이혼 유무, 부모의 도박행동 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행동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3) 지역사회 변인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지역사회변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 친구의 도박행동 경험 유무, 도박경험이 있는 친구 수 등을 파악하였다.

4) 저수준 도박행동

저수준 도박행동은 Kim 등(2011)이 개발한 저수준 도박행동 척도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3개의 하부요인, 즉 도박에의 무관심, 사교 및 오락 도박, 저위험 도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3점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총점이 높

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학생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15명(55.3%), 여자가 175명(44.7%)이었고, 나이는 20~29세가 288명(74.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84명(21.6%), 40세 이상 17명(4.4%)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11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103명(26.5%), 3학년이 88명(22.6%), 4학년이 87명(22.4%) 순이었고, 대상자가 지각한 성적은 중위가 19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위가 30%로 102명(26.2%), 상위가 30%로 88명(22.6%)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197명(50.6%)이었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192명(49.4%)이었다. 용돈은 20만원 미만이 213명(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미만이 113명(29.0), 40만원 이상이 63명(16.2%)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도박 경험 시기는 14~19세가 145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이하가 125명(32.1%), 20세 이상이 98명(25.2%), 도박 경험이 없는 학생이 21명(5.4%)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이 200명(51.4%)

으로 가장 많았고, '하'로 인지하는 학생 105명(27.0%), 상으로 인지하는 학생 84명(21.6%) 순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학생이 46명(11.8%)이었고, 아버지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259명(66.6%)이었으며, 어머니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194명(49.9%)이었다. 형제자매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184명(47.3%)이었고, 친구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379명(97.4%)이었다. 도박하는 친구의 수는 1~4명이 299명(76.9%)으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80명(20.5%), 0명이 10명(2.6%) 순이었다. 도박 접근성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345명(88.7%), '보통 수준의 거리'라고 한 학생 23명(5.9%), '꽤 먼 거리'라고 한 학생 21명(5.4%) 순이었다.

대상자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는 성적, 용돈, 최초 도박경험 시기, 가정의 경제상태, 아버지의 도박 경험 유무, 어머니의 도박 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 경험 유무, 친구의 도박 경험 유무, 도박하는 친구의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수준 도박행동은 성적이 하위 30%인 학생이 상위 30%인 학생보다 높았고($F=2.16, p=.032$),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학생이 20만원 미만인 학생보다 높았으며($F=1.94, p=.009$), 최초 도박 경험 시기가 13세 미만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14세 이상인 학생이 도박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F=3.58, p<.001$).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 수준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이 '하' 수준이라고 인지하는 학생보다 높았고($F=2.15, p=.048$), 아버지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t=3.01, p<.001$), 어머니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고($t=3.86, p<.001$), 형제자매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다($t=3.41, p=.001$). 친구가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고($t=2.78, p=.030$),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가 5명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가 1~4명인 학생이 도박하는 친구가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F=3.01, p=.009$).

2.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 간의 관계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합리적 도박신념($r=.48, p<.001$), 사교동기($r=.58, p<.001$), 유희동기($r=.44, p<.001$), 흥분동기($r=.38, p<.001$), 회피동기($r=.21, p<.001$), 금전동기($r=.29, p<.001$), 위험

Table 1. Differences in the Low Level Gambling Behavior according to Perso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for Subjects (N=389)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Low level gambling behavior			
				M±SD	t or F	p	Scheffé
Personal variables	Gender	Male	215 (55.3)	1.9±0.42	0.88	.181	
		Female	175 (44.7)	1.9±0.31			
	Age (year)	20~29	288 (74.0)	1.9±0.21	0.91	.211	
		30~39	84 (21.6)	1.9±0.44			
		≥ 40	17 (4.4)	1.9±0.34			
	Grade	Freshman	111 (28.5)	1.9±0.41	0.41	.356	
		Sophomore	103 (26.5)	1.9±0.31			
		Junior	88 (22.6)	1.9±0.18			
		Senior	87 (22.4)	1.9±0.16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a (upper 30%)	88 (22.6)	1.9±0.31	2.16	.032	a < c
		Middle ^b	199 (51.2)	1.9±0.32			
		Lower ^c (lower 30%)	102 (26.2)	2.0±0.23			
	Religion	Have	197 (50.6)	1.9±0.16	0.66	.349	
		Have not	192 (49.4)	1.9±0.35			
	Pocket money (10,000 won/month)	< 20 ^a	213 (54.8)	1.8±0.41	1.94	.009	a < b, c
		20~ < 40 ^b	113 (29.0)	1.9±0.20			
		≥ 40 ^c	63 (16.2)	1.9±0.46			
	Onset of gambling (age)	No ^a	21 (5.4)	1.3±0.23	3.58	< .001	a < c, d < b
		≤ 13 ^b	125 (32.1)	1.8±0.44			
		14~19 ^c	145 (37.3)	1.7±0.42			
		≥ 20 ^d	98 (25.2)	1.7±0.14			
Familial variables	Economic status	High ^a	84 (21.6)	1.9±0.36	2.15	.048	b > c
		Middle ^b	200 (51.4)	2.0±0.24			
		Low ^c	105 (27.0)	1.9±0.41			
	Parent divorce	Yes	46 (11.8)	1.9±0.34	0.57	.425	
		No	343 (88.2)	1.9±0.31			
	Gambling experience of father	Yes	259 (66.6)	1.9±0.40	3.01	< .001	
		No	130 (33.4)	1.8±0.21			
	Gambling experience of mother	Yes	194 (49.9)	2.0±0.37	3.86	< .001	
		No	195 (50.1)	1.8±0.44			
Environmental variables	Gambling experience of sibling	Yes	184 (47.3)	1.9±0.41	3.41	.001	
		No	205 (52.7)	1.9±0.50			
	Gambling experience of peers	Yes	379 (97.4)	1.9±0.35	2.78	.030	
		No	10 (2.6)	1.6±0.28			
	Number of gambling peers	0 ^a	10 (2.6)	1.6±0.28	3.01	.009	a < b < c
		1~4 ^b	299 (76.9)	1.9±0.33			
		≥ 5 ^c	80 (20.5)	2.0±0.26			
	Gambling accessibility	Near	345 (88.7)	1.9±0.44	0.09	.813	
		Moderate	23 (5.9)	1.9±0.51			
		So far	21 (5.4)	1.9±0.34			

감수성향($r=.3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64, p<.001$), 가족건강성($r=-.59,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 이외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비합리적 도박 신념은 사교동기($r=.21, p<.001$), 유희동기($r=.25, p<.001$), 흥분동기($r=.39, p<.001$), 회피동기($r=.37, p<.001$), 금전동기($r=.34, p<.001$), 위험감수성향($r=.55, p<.001$)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43, p<.001$), 가족건강성($r=-.33,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사교동기는 유희동기($r=.34, p<.001$), 흥분동기($r=.21, p<.001$), 회피동기($r=.22, p<.001$), 금전동기($r=.36, p<.001$), 위험감수성향($r=.38, p<.001$)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28, p<.001$), 가족건강성($r=-.34,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유희동기는 흥분동기($r=.29, p<.001$), 회피동기($r=.31, p<.001$), 금전동기($r=.28, p<.001$), 위험감수성향($r=.39, p<.001$)과 유의한 순상관

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31, p<.001$), 가족건강성($r=-.28,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흥분동기는 회피동기($r=.28, p<.001$), 금전동기($r=.26, p<.001$), 위험감수성향($r=.34, p<.001$)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34, p<.001$), 가족건강성($r=-.33,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회피동기는 금전동기($r=.38, p<.001$), 위험감수성향($r=.37, p<.001$)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35, p<.001$), 가족건강성($r=-.38,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금전동기는 위험감수성향($r=.43, p<.001$)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r=-.38, p<.001$), 가족건강성($r=-.29,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위험감수성향은 자기통제($r=-.41, p<.001$), 가족건강성($r=-.20, p<.001$)과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통제는 가족건강성($r=.31, p<.001$)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다.

3.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을 확인하고 단변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Low Level Gambling Behavior and Perso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for Subjects ($N=389$)

Variables		Irrational gambling beliefs	Motives of gambling					Risk taking	Self -control	Family strengths
			Social	Amuse-ment	Thrill	Avoiding	Monetary			
			r (p)	r (p)	r (p)	r (p)	r (p)			
Motives of gambling	Social	.21 (< .001)	1 (< .001)							
	Amusement	.25 (< .001)	.34 (< .001)	1						
	Thrill	.39 (< .001)	.21 (< .001)	.29 (< .001)	1					
	Avoiding	.37 (< .001)	.22 (< .001)	.31 (< .001)	.28 (< .001)	1				
	Monetary	.34 (< .001)	.36 (< .001)	.28 (< .001)	.26 (< .001)	.38 (< .001)	1			
Risk taking		.55 (< .001)	.38 (< .001)	.39 (< .001)	.34 (< .001)	.37 (< .001)	.43 (< .001)	1		
Self-control		-.43 (< .001)	-.28 (< .001)	-.31 (< .001)	-.34 (< .001)	-.35 (< .001)	-.38 (< .001)	-.41 (< .001)	1	
Family strengths		-.33 (< .001)	-.34 (< .001)	-.28 (< .001)	-.33 (< .001)	-.38 (< .001)	-.29 (< .001)	-.20 (< .001)	.31 (< .001)	1
Low level gambling behavior		.48 (< .001)	.58 (< .001)	.44 (< .001)	.38 (< .001)	.21 (< .001)	.29 (< .001)	.39 (< .001)	-.64 (< .001)	-.59 (< .001)

저수준 도박행동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명목척도의 변인으로 성적, 용돈, 최초 도박 경험 시기, 가정의 경제상태, 아버지의 도박경험 유무, 어머니의 도박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경험 유무, 친구의 도박경험 유무,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각 변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였다.

또한 저수준 도박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속변수인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의 하부요인인 사교동기, 유흥동기, 흥분동기, 회피동기, 금전동기, 위험감수성향 및 가족건강성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는 .20~.55로 .80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관련변인으로서의 투입조건이 되어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36~.79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1~2.14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Du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bin-watson 값이 1.87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여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 중 저수준 도박행동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성적, 용돈, 최초 도박 경험 시기, 가정의 경제상태, 아버지의 도박경험 유무, 어머니의 도박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경험 유무, 친구의 도박경험 유무,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의 하부요인인 사교동기, 유흥동기, 흥분동기, 회피동기, 금전동기, 위험감수성향 및 가족건강성을 투입한 결과,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으로 개인요인 중 자기통제($\beta = -.38$), 도박동기 중 사교동기($\beta = .25$)와 유흥동기($\beta = .21$), 최초 도박행동 경험 시기($\beta = .18$), 비합리적 도박신념($\beta = .16$), 위험감수 성향($\beta = .05$)으로 나타났고, 가족요인 중 가족건강성($\beta = -.32$), 아버지의 도박경험 유무($\beta = .11$), 어머니의 도박경험 유무($\beta = .11$)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변인은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beta = .19$), 친구의 도박경험 유무($\beta = .08$)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와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사교동기와 유흥동기가 높을수록,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도박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최초 도박행동 경험이 13세 이하인 경우,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높을수록, 부모와 친구의 도박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인 경우,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저수준 도박행동의

Table 3. Predictors of the Low Level Gambling Behavior of Subjects

(N=389)

Predictors	B	SE	β	t	p
Self-control	-0.18	.02	-.38	11.28	< .001
Family strengths	-0.21	.02	-.32	8.45	< .001
Social motives	0.18	.01	.25	5.98	< .001
Amusement motives	0.16	.09	.21	5.10	< .001
Number of gambling peers	3.10	.21	.19	3.98	< .001
Onset of gambling [†]	2.95	.18	.18	3.74	< .001
Irrational gambling beliefs	0.12	.05	.16	3.58	< .001
Gambling experience of father [‡] d1	0.65	.23	.11	2.85	.004
Gambling experience of mother [‡] d2	0.64	.23	.11	2.84	.004
Gambling experience of peers [‡] d3	0.55	.21	.08	2.01	.035
Risk taking	0.09	.01	.05	1.99	.047
Adj. R ² = .655, F = 18.55, p < .001					

[†] Dummy variables (no experience=0, age ≤ 13=d1); [‡] Dummy variables (no gambling experience=0, gambling experience of father=d1, gambling experience of mother=d2, gambling experience of peer=d3).

65.5%를 설명하고 있었다($F=18.55,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를 파악한 결과, 개인요인 중 성적, 용돈, 최초 도박경험 시기에 따라 도박행동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이 하위 30%인 학생이 상위 30%인 학생에 비해 저수준 도박행동이 높다는 것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Park & Jung, 2011) 성적이 도박행동 유무에 유의한 관련요인이었다는 선행연구(Goudriaan et al., 2009)와 같은 결과이다.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학생이 20만원 미만인 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고수준 도박행동 도구로 측정한 결과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박심각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Kwon & Kim, 2011)와 유사하나, 저수준 도박행동의 경우가 더 낮은 수준의 용돈을 가진 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월수입이 병적도박자 집단과 비병적도박자 집단에서 유의한 관련 요인이 아니었다는 선행연구결과(Weinstock et al., 2008)와 같이 다소 다른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위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도박행동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최초의 도박경험시기가 13세 미만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저수준 도박행동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최초의 도박경험 시기가 인터넷도박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는 결과(Griffiths et al., 2009)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국내의 고수준 도박행동을 포함한 도구로 대학생의 도박행동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Kim, 2012) 최초의 도박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도박행동 측정 수준에 따른 차이인지 표집 대상의 특성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는 가정의 경제상태, 아버지의 도박 경험 유무, 어머니의 도박 경험 유무, 형제자매의 도박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 수준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이 ‘하’ 수준이라고 인지하는 학생보다 저수준 도박행동이 높았으며, 이는 빈곤계층보다는 비교적 중산층에서 도박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Kwon & Kim, 2011)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및 형제자매의 도박경험 유무와 저수준 도박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가족 구성원 중 부모와 형제자매의 도박심각도가 대학생

의 도박행동 경험에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는 선행연구(Goudriaan et al., 2009; Park & Jung, 2011)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성인기로 포함되는 대학생의 행동에는 가족의 영향요인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Goudriaan et al., 2009)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는 친구의 도박 경험 유무, 도박하는 친구의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도박경험이 있는 친구의 유무와 도박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도박경험 유무(Goudriaan et al., 2009)나 고수준 도박행동(Lee, 2010)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가 차이가 있었던 요인들을 고려한 관리 및 예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도박행동 수준에 따라 각각 특성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에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특성 중 도박행동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과 도박행동과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개인과 가족의 변인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한 결과,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개인요인은 자기통제, 도박동기 중 사교동기와 유희동기, 최초 도박행동 경험 시기, 비합리적 도박신념, 위험감수 성향이었고, 가족요인은 가족건강성, 아버지의 도박경험 유무, 어머니의 도박경험 유무였으며, 지역사회 변인은 도박을 하는 친구의 수, 친구의 도박경험 유무였고, 이들 변인들의 저수준 도박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65.5%였다.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개인변인 중 자기통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가 중독성(Park, 2012)과 다른 중독의 관련요인 및 매개변인으로의 역할을 하고(Kim, 2006), 특히 도박군과 비도박군의 주요 예측요인이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Jung, 2011; Park & Jung, 2011)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간호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가족변인 중 가족건강성이었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 (2012)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가족원

간의 몰입인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가치관인 가치체계 공유, 가족의 적응력인 문제해결능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Kim, 2012)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 만족도(Blinne-Pike, Worthy, & Jonkman, 2010), 가족 지지(Engwall, Hunter, & Steinberg, 2004), 가족 간 의사소통(Griffiths et al., 2009; Park & Jung, 2011)이 도박행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할 때 대학생의 도박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생 개인의 도박행동의 개선이나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접근보다는 가족단위의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 간의 몰입인 유대감(blinne-pike et al., 2010; kim, 2012), 가족 간의 의사소통(griffiths et al., 2009; Jung, 2011; Kim, 2012), 가족 간의 가치관인 가치체계 공유(Griffiths et al., 2009; Jung, 2011; Kim, 2012), 가족 구성원 공동의 적응력인 문제해결능력(Kim, 2012) 등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도박동기 중 사교동기와 유희동기 각각이 저수준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수준 도박자들은 사교동기와 유희동기가 가장 높고, 문제성 도박자들은 유희동기와 흥분동기가 높으며, 병적도박자들은 흥분동기, 회피동기 및 금전동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Cox & Klinger, 1990; Lee, 2003)와 일관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성 도박과 병적도박에 비해 사교성 도박 집단에서의 사교동기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선행연구(Lee, 2003)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도박의 정도에 따른 비교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른 도박동기의 차이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도박동기를 파악하여 도박행동 예방 및 치료방법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기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의 다섯 번째 관련요인으로 도박을 경험한 친구의 수가 의미 있게 도출되었고, 이후의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관련요인으로 부모의 도박행동 경험과 친구의 도박행동 경험이 도출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행동 관련요인 연구에서 도박을 경험한 친구의 수, 부모와 친구의 도박행동 경험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도출되었고(Park & Jung, 2011), 이 변인이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이라는 연구결과(Molde et al., 2009)를 고려할 때, 대학생 집단이 보통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지만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있으므로(Kwon & Kim, 2011) 의미 있는 타인인 친구가 도박행동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아도 모델링을 통해 도박행동을 할 수 있

으며, 부정적인 또래 모방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단위의 접근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또래가 함께 고려된 도박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의 여섯 번째 관련요인은 최초 도박행동 경험시기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이하의 나이에 도박행동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도박행동 점수가 높았다. 이는 어린 나이의 도박 경험이 도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Griffiths et al., 2009), 평균 10.5세 이전에 도박행동을 시작한 집단은 음주행동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경험이 높았다는 점(Burge, Pietrzak, & Petry, 2006)을 고려할 때 다른 중독행동의 스위치 역할이나 관문중독(gateway addiction)의 역할(Hyder & Juul, 2008)을 하는 도박행동으로의 이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도박행동 경험시기를 사전 조사하고, 대상자 선별을 통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련요인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위험감수성향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위험감수성향은 지금까지 국내외 도박 관련 선행연구(Hyder & Juul, 2008; Jung, 2011; Lee, 2003; Park & Jung, 2011)에서 설명력이 높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정도 역시 중위수준 이상이였다. 선행연구에서 문제성 도박과 비합리적 도박신념, 문제성 도박과 위험감수성향의 상관관계나 설명력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설명력과 상관관계의 값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도박중독의 수준에 따라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위험감수성향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변인을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변인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사교동기와 유희동기가 높을수록, 최초 도박행동 경험시기가 빠를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이 높았다. 따라서 대학생의 도박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기통제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도박동기, 도박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도박에 의한 개인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요인을 고려해 보면,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이 높았다. 부모의 도박행동 경험이 있을 때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가 높으므로, 가족 간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도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련 변인으로 도박행동을 경험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토대로 대학중심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도박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관련 변인 파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도박행동 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의표집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권역별 분포를 고려한 무작위 확률표집으로 추후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과 고수준 도박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는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과 관련 변인의 구조모형 구축과 도박행동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자기통제였고, 다음으로 가족건강성, 도박동기 중 사교동기와 유희동기, 도박을 하는 친구 수, 최초 도박행동 경험시기, 비합리적 도박신념, 부모의 도박행동 경험, 친구의 도박경험, 위험감수성향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족과 심리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전략, 도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돕고 비합리적 신념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긍정적 사회인으로서의 관계 형성 기술 증진을 위한 전략 등을 고려한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저수준 도박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이 병적 도박으로 이환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rnes, G. M., Welte, J. W., Hoffman, J. H., & Tidwell, M. C. (2010). Comparisons of gambling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d noncollege you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 443-452.
- Blinne-Pike, L., Worthy, S. L., & Jonkman, J. N. (2010). Adolescent gambling: A review of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 223-236.
- Burge, A. N., Pietrzak, R. H., & Petry, N. M. (2006). Pre/early adolescent onset of gambling and psychosocial problems in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2*, 263-274.
- Cox, M., & Klinger, E. (Eds.).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abuse: A model*. New York: Gardner Press.
- Engwall, D., Hunter, R., & Steinberg, M. (2004). Gambling and other risk behaviors on university campus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2*, 245-255.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Ferris, J., & Wynne, H.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Final report*. Ottawa, ON: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7-54.
- Goudriaan, A. E., Slutske, W. S., Krull, J. L., & Sher, K. J. (2009). Longitudinal patterns of gambling activitie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college students. *Addiction, 104*, 1219-1232.
- Griffiths, M., Wardle, H., Orford, J., Sproston, K., & Erens, B. (2009).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internet gambling finding from the 2007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199-202.
- Hyder, A. A., & Juul, N. H. (2008). Games, gambling, and childre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child heal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1*, 202-204.
- Hyun, M. Y., & Kim, M. D. (2009).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and awareness of gambl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95-103.
- Jung, S. Y. (2011). *The structural model of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Kim, H. J. (2009).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J. E. (2012).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gambling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Kim, K. H. (2006). Self-regulation model of gambling behavior: The extension of common-sense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243-274.

- Kim, K. H., Kwon, S. J., Kim, S. J., & Lee, S. M. (2011). Conceptualization of low level gambling behaviors and development of a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 599-629.
- Kwon, B. S., & Kim, Y. H. (2011). A study of gambling addiction and its actual condi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9, 5-28.
- Kwon, S. J., Kim, K. H., & Choi, J. O. (2006). Awareness of adult gambling and predictors of gambling behavior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147-162.
- Lee, H. (2010). *Gambling risk factors and strategies of gambling industry*. Seoul: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Lee, H. P. (2003). The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 to the pathological gambl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415-434.
- Lee, K. H. (2009). Preliminary study for validation of Korean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667-675.
- Lee, S. M., & Kim, J. N. (2009). Evaluation/diagnosis and related rates reflection the nature of gambling problem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1-26.
- Molde, H., Pallesen, S., Bartone, P., Hystad, S., & Johnsen, B. H. (200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gambling among 16 to 19-year-old adolesce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0, 55-64.
- Nam, H. M., & Ok, S. H.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 37-58.
- Nation, M., Crusto, C., Wandersman, A., Kumpfer, K. L., Seybolt, D., Morrissey-Kane, E., et al. (2003). What works in prevention: Principles of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58, 449-456.
- Park, H. S. (2012). The study on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 263-271.
- Park, H. S., & Jung, S. Y. (2011). Predictors of gambl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219-232.
- Weinstock, J., Whelan, J. P., & Meyers, A. (2008).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 When does it becoming harmful?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6, 513-522.